

우리나라 物價動向과 그 特徵

(1978年을 中心으로)

金 經 斗

〈全國經濟人聯合會産業部調査役〉

1. 物價理論과 對策의 選擇

自然科學이나 社會科學을 막론하여 理論이라는 것은 自然現象이나 社會現象을 分析하고 說明할 수 있어야 한다. 똑같이 物價理論도 物價上昇現狀을 分析해 줄 수 있어야 하며, 여기에서 비로서 그 解決方案으로서의 對策이 수립되어질 수 있다. 그릇된 理論에서 도출된 對策은 物價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보다는 惡化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過去 30年間 지속되어온 인플레이션을 解決한다고 많은 結論과 對策이 紙上에 오르내렸지만 그것은 結論과 對策만으로 끝났던 감이 있다. 아마도 그 주된 理由는 우리나라 物價現狀을 說明할 수 있는 理論의 定立 또는 이에 대한 컨셉서의 不足일 것이다.

現在, 거론되고 있는 物價에 대한 諸理論은 코스트 푸시理論, 디만드·풀理論, 構造的理論들이다. 코스트·푸시理論에서 인플레이의 主犯으로 보고 있는 것은 賃金이다. 이 理論은 저렴한 資源 또는 原料의 安定確保는 可能하나 勞組의 賃金引上要求가 問題가 되던 狀況을 說明해 주는 데에는 適合하다. 70年代에 들어와서 石油를 爲始한 資源波動으로 資源價格이 急騰하면서 코스트·푸시理論에 있어서의 코스트는 賃金으로부터 原料로 轉換되는 感이 있으나, '70年代以後' 특히 우리나라의 物價構造를 코스트·푸시理論으로 說明하기에는 미흡하다 하겠다.

다음 디만드·풀理論은 需要超過를 인플레이의 主犯으로 보고 있다. 需要와 供給이 均衡된 狀態에서, 經濟外的 또는 內的變化로 인한 需要

增加로 인플레이가 發生될 때를 말한다. 이 理論이 우리나라의 인플레이를 그런대로 說明해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까지 供給과 需要가 均衡된 때가 없었다는 점, 絶對的 物量供給이 不足했다는 점, 現實的으로 生産施設이나 生産條件때문에 供給能力은 限界가 있으나 心理에 影響을 받는 需要는 限界가 없다는 점을 考慮할 때, 디만드·풀理論으로 인플레이를 說明할 수 있다 하더라도 對策樹立은 어렵다 하겠다.

所謂 스트락추얼 씨어리 (Structural Theory)라 불리는 構造理論은 貨幣經濟와 實物經濟의 괴리, 工業과 農業等的 構造不均衡을 인플레이의 主要因으로 보고 있다. 코스트·푸시나 디만드·풀이 供給側面과 需要側面에서 인플레이를 分析하고 있고, 주로 先進 工業國에 適合한 理論이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스트락추얼·씨어리는 經濟構造的側面에서 開發途上國의 인플레이를 說明해 주는 데에 適合하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輕工業과 重工業間的 조화문제, 工業과 農業의 均衡문제, 輸出과 國內産業과의 관련성, 金融과 生産과의 相互補完問題등이 심각히 대두되고 있고 이러한 問題들이 해결될 때 30年 인플레이의 실마리도 풀릴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인 점을 勘案하면, 物價에 대한 構造的 접근이 가장 바른 길이라고 하겠다.

이상 거론되고 있는 物價理論을 바탕으로 하여 物價對策이 세워지는데, 一般的으로 物價對策은 크게 傳統的接近과 非傳統的接近으로 분류되고 있다. 傳統的接近은 貨幣·金融政策을 수단으로 한 인플레이 解決方案을 말한다. 이것은

貨幣經濟와 實物經濟가 調和를 이루고, 또한 金融制度가 잘 정비된 先進工業國의 인플레이션 對策이라 하겠다. 非傳統的接近은 物價對策을 貨幣·金融的側面에서 보다는 構造的側面에서 찾고 있다. 즉 需要가 供給을 초과할 경우 通貨量의 조절을 통한 需要억제 보다는 生産增大를 통한 解決을 摸索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만성적인 人플레이션을 해결하는데 있어서서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선 우리나라의 人플레이션을 分析하고 說明할 수 있는 理論이 定立되어야 하겠고, 이것을 토대로하여 對策이 樹立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物價理論으로서의 構造理論, 物價對策으로서 非傳統的接近이 좀더 研究發展 되어야 할 것이다.

2. 最近의 物價上昇要因

最近 우리나라 物價上昇의 構造的 要因으로 들 수 있는 것은 防衛費比重的 提高, 과욕한 成長率이 요구한 과다한 投資支出, 重化學工業에 따르는 資本의 懷妊期間의 長期化 海外로 부터의 방대한 購買力移轉, 生産不均衡등을 들 수 있다.

防衛費支出은 재고가 되는 것이 좋겠으나 오늘날 世界各國에서 그러한 예는 찾아 볼 수 없고, 또한 우리의 現實여건상 불가피하다 하겠다. 그러나 大砲와 버터」라는 고전적 例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大砲生産을 당시의 狀況이 必要로 하는 適正線에 일단 책정하였다면 버터 生産은 나머지 資原으로 生産可能한 선에 억제했어야 한다. 우리의 경우 日淸전쟁에 있는 防衛費도 부담해야만 되고, 이 부담액을 제한 나머지 成長을 위한 投資支出이 이루어지더라도 防衛産業建設에 따른 人플레이션은 여전히 남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적어도 防衛費 負擔을 제외한 나머지 資原의 범위내에서 投資需要를 억제함으로써 投資인플레이션을 없애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과욕한 成長率추구로 과다한 投資支出이 야기된 것이다.

重化學工業化는 資本의 懷妊期間을 요구하므로 아무리 非인플레이션의 方法으로 投資資原이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人플레이션은 誘發되기 마련이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重化學工業化의 속도를 조절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適切한

購買力 調節政策을 講究함으로써 극소화 시킬 수 있다.

海外로 부터의 방대한 購買力이론은 재화가 없는 購買力을 의미하는 것으로 適切한 外換政策이 要請된다. 生産不均衡은 經濟成長과 결부된 國民消費패턴의 變化에 生産構造가 적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類似品目間에서도 發生하고 있고 工產品과 農水産食品間에서도 發生하며, 重化學工業比重的 상대적 우위에 따른 輕工業投資의 약화로 인한 生必需品供給 不足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상 언급한 構造的側面에서의 物價上昇要因 외에도, 公共料金, 海外原資材, 流通 및 消費者, 등을 들 수 있다. 이제까지 公共料金の 引上率은 都売物價上昇率을 上廻하여 왔던 것이 事實이다. 公共料금이 他 物價를 先導하고 있고, 모든 國民의 心理에 影響을 주어 人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는 주장등을 勘案할 때, 公共料金は 補助金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物價案定手段으로 使用하는 方案이 講究되어야 하겠다.

物價라는 側面에서 본 流通近代化는 流通마진의 축소에 있다. 生産과 消費를 증계하는 流通部門이 적정마진으로 生産을 돕고 消費를 保護해야만 되는데 買占賣惜이나 2重價格으로 生産과 消費를 壓迫하고 物價不安을 촉진시키고 있는 것이 現實이다. 이제까지 生産에 力點을 두다보니 상대적으로 流通部門이 소홀히 되어 왔기때문으로 보겠으나, 앞으로는 農水産物의 流通을 선두로 하여 전반적 流通部門의 近代化가 要請되고 있다. 아울러 消費者의 團合이 必要하다. 生産, 流通, 消費의 3세력이 均衡을 이루는 것이 物價安定에 重要하다. 價格引上이나 品質水準의 低下에 대하여 책임있는 生産者나 流通業者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消費者에게 있도록 消費者團體가 育成되어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여러가지 要因이 主張되고 있으나 基本的인 것으로 安定政策의 比重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있다. 政治安定이 政治發展의 토대이며, 社會安定이 社會發展의 바탕이 라는데에 이의가 없다면, 經濟發展도 經濟安定을 基本條件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物價安定은 모든 經濟價值中 최우선 되어야 하며 또한

여타의 經濟目標達成을 위한 基本條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政府는 國民經濟內部에서 生産과 消費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民間部門을 지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의 궁극적 책임은 政府에 있다는 점을 감안 할 때, 最高價值로서 安定이 대접받지 못했고, 이에 따라 物價安定을 위한 法律이나 行政機構面이 강화되지 못한 것이 物價上昇의 외적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3. 1978年の 物價動向과 特徵

1) 78年度 物價動向

必要한 物品을 合理的인 價格으로 購入할 수 있는나의 여부는 모든 經濟活動 成果의 指標가 되어 왔다. 다시 말하면 物量供給이 어느 정도 充足되면서 品目別 供給이 效用의 순위에 따라 均衡을 이루고, 아울러 그 價格基準이 安定되어야 만이 제길을 가는 經濟活動 狀態인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 비추어 봤을때, 우리 國民經濟는 日帝時代를 包含하여 自意진 他意진 간에 정상적 經濟活動 軌道에서 이탈되어 왔다. 需給의 만성적 不均衡은 價格安定의 定着을 부단히 阻害해 왔을 뿐만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여타의 經濟部門도 歪曲된 構造의 蓄積을 가속시키는 結果를 보였다. 1978年은 蓄積된 價格構造의 歪曲이 한편으로는 잠재되면서 部分的으로 顯在化되는 現象을 보였다. 上昇된 原價를 勘案하지 않은 價格統制壓力이 物價上昇壓力을 눌러 잠재시켰고, 非統制品目의 價格은 急騰하는 現象을 나타냈다. 都賣物價指數上에 나타난 숫자를 보면 75~80年間 年平均 12.8%의 도매물가 상승을 보이고 있고 78年은 前年對比 12.2%의 上昇을 나타냈다. 同期間中 食料品 이외의 品目은 年平均 9.3%, 食料品은 年平均 20.5% 上昇하여 食料品이 全体 都賣物價를 주도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細分해 보면 1977年과 1978年에 걸쳐서 工產品은 各各 6.1%, 8.7% 上昇하여 農水產品에 비하여 安定的 이었다. 그러나 農水產品은 各各 25.6%, 21.3% 上昇하였고 水産食品은 53.9%, 21.3%나 上昇하였던 것이다. 結局 農水産食品의 安定이 物價安定을 위한 선

결과제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고 國民消費 패턴의 變化로 特用作物이 各各 39.5%, 205.6%의 暴騰을 나타낸 점을 봐도 生産調整政策과 農水産物 流通合理化推進이 절대적으로 要望된다고 하겠다. 物價의 安定은 國民生活의 安定을 의미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므로 國民消費生活에 不可缺한 農水産食品의 價格安定에 우선순위가 두어져야 할 것이다.

農産物의 流通構造를 보면, 78年度 總農産物中 62.4%가 商品化되고 流通의 近근대성으로 인하여 나머지 37.6%는 商品化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商品化가 된 農産物도 農協·共販場·都賣市場을 통해 去來된 量은 76~78年間 年平均 31%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69%는 近근대적인 在來市場에서 去來되고 있다. 78年에 일어났던 고추 및 배추 波動의 原因은 近근대적 流通機構에 그 原因이 있다 하겠다. 쌀·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달걀 등 비교적 在來市場을 통해 去來되지 않는다고 볼수 있는 農産食品의 流通마진率이 78年 現在 20%에 달하고 있는 것을 보면 在來市場을 통해 去來되는 農産食品의 流通마진率은 20%가 넘고 있음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게다가 流通의 多段階 및 保管施設의 未備에 따라 商人의 暴利 行爲가 發生하고 季節的인 價格暴騰이 야기되었던 것이다.

다음 工產品 價格은 農水産食品에 비하여 비교적 安定的이었으나, 그 安定은 經濟外的인 힘에 의한 安定이었다고 말 할 수 있겠다. 즉 148

年度別 物價上昇率 推移

(表 - 1) (單位: %)

区分 \ 年度	75	76	77	78	平均 (75-78)
全國都売物價	19.6	9.4	10.1	12.2	12.8
食料品	25.5	14.2	21.1	21.2	20.5
食料品以外	16.5	7.4	5.4	7.7	9.3
原資材	16.5	8.5	4.6	6.7	9.1
資本材	17.2	1.7	8.0	2.7	7.4
消費材	22.8	11.2	15.8	18.3	17.0
輸出物價	7.1	14.3	4.7	21.7	12.0
輸入物價	-5.3	7.7	-1.7	10.4	2.8

資料: 都売物價 (韓銀, 1978. 12)

個의 主要 工產品이 獨寡占品目으로 指定되었고, 이들 製品의 價格이 物價當局에 의하여 統制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價格統制는 需要와 供給에 의해서 價格이 結定되어지는 市場메카니즘의 沈滯를 가져오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統制 價格이 製造原價 上昇을 무시한 선에서 結定되었기 때문에 그 結果는 生産施設의 新增設 忌避 및 稼動率의 低下에 따른 國內 物量供給不足, 아니면 品質 및 含量의 低下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다. 게다가 國民消費需要의 增加와 物價安定에 따른 假需要가 가세되어 品貴 및 買占賣惜 現象이 發生하고 이에 따라 流通過程에서 막대

한 프리미엄이 붙거나 2重價格이 刑成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1978年 工產品의 都賣物價 上昇率 8.7%는 프리미엄이나 2重價格이 반영되지 않은 獨寡占 價格만을 반영한 숫자일 것이라는 점, 그리고 生産者에서 消費者에 이르는 製品價格이 統制價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價格으로 去來된 品目の 경우에도 物價 上昇壓力이 統制壓力에 눌러 潛在되었거나 含量의 低下를 가져온 점을 고려한다면 78年의 工產品 價格도 農水産食品 못지않게 不安定 하었다고 보겠다.

品目別 物價上昇 寄與度 對比

〈表-2〉

年度 区分	加重直	77年			78年		
		上昇率 (%)	寄與度 (%-P)	寄與率 (%)	上昇率 (%)	寄與度 (%-P)	寄與率 (%)
總 指 數	1000.0	10.1	10.1	100.0	12.2	12.2	100.0
農 産 食 品	155.9	25.6	4.4	43.6	29.3	5.7	46.7
米 麥 類	69.6	4.8	0.4	4.0	19.5	-1.3	10.7
果 實 類	13.6	31.4	0.5	4.9	36.5	0.7	5.7
特用作物	14.1	39.5	0.5	4.9	205.6	3.4	27.9
畜 産 物	38.6	35.7	1.7	16.8	15.1	0.9	7.4
채 소 류	8.3	89.1	0.8	7.9	42.3	-0.7	-5.8
水 産 食 品	19.4	53.9	1.3	12.9	23.1	0.8	6.6
工 産 食 品	824.7	6.1	4.4	43.6	8.7	5.7	46.7

資料：都売物價 (韓銀 1978. 12)

農産物 流通機構別 市場点有率

(單位：10億원)

〈表-3〉

年度		76		77		78	
区分		金額	点有率	金額	点有率	金額	点有率
總 生 産 額 (A)		27,138		31,063		35,529	
商 品 化 額 (B)		16,399		19,043		22,175	
(商品化率B/A%)		60.4		61.3		62.4	
市場点有率	農 協	3,718	22.7	4,641	24.4	5,500	24.8
取扱額 및	共 販 場	388	2.4	757	4.0	847	3.8
	都 売 市 場	672	4.1	677	3.6	700	3.2
流通機構別	其 他	11,621	70.8	12,968	68.0	15,128	68.2

※ 78年은 計劃인

資料：農協

〈表-4〉 農産食品의 流通 마진率(1978)

品目	区分	農家受取率	流通 마진 率		
			費用	利潤	計
米 穀		81.6	3.0	15.4	18.4
소		77.6	6.3	16.1	22.4
돼 지		75.3	8.2	16.5	24.1
肉 鷄		82.4	2.1	15.5	17.6
鷄 卵		85.4	3.6	11.0	14.6

2) 通貨增加率과 實物增加率의 飛離

物價上昇이 일어나는 原因은 世界經濟나 國民經濟的 여건에서 구해져야 하겠으나, 一般的으로 說明되어질 수 있는것은 역시 貨幣數量說이라 하겠고 事實 해방이후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의 인플레이는 방만한 通貨膨脹에 의해 主導되었다 하겠다.

通貨量은 交換方程式($M = \frac{PT}{V}$)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貨幣流通速度가 增加하면 通貨量은 감소하고, 價格水準이 上昇하거나 去來量이 增加하면 같이 증가하는 것이 一般的 원칙이다. 따라서 適正通貨 增加率은 實質經濟成長率·物價上昇率·商品의 貨幣化率이 적정하게 반영된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農水産物의 貨幣化가 계속 增加되고 있다고 보겠으나 그것이 全体 GNP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미미한것으로 가정한다면 通貨 增加率에서 GNP增加率을 뺀 나머지는 物價上昇에 기여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1975~78年間 年平均 通貨 增加率은 30.7%이었고 GNP成長率은 年平均 11.7%를 나타내고 있는데 30.7%에서 11.7%를 뺀 19.0%의 通貨增加는 그 대부분이 物價上昇으로 나타났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部門別 通貨供給殘額의 比重을 보면 政府部門은 1975年 25.7%에서 1978年 4.8%로 減少했고 肥料部門은 同期間에 9.3%에서 9.8%로 增加했으며 民間部門은 10.2%에서 97.6%로, 海外部門은 -19.7%에서 21.7%로 기타, 가 -17.5%에서 -28.8%로 增減狀態를 보였다. 政府部門과 海外部門은 通貨에 中립적인 影響을 주는것이 原則이라 하겠으나 지금까지 그 령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며, 더구나 不合理한

肥料計定の 赤字가 해마다 通貨增加에 기여해 온 것을 볼 때, 이 部門에 대한 근본적 對策이 요망시 되고 있다.

通貨와 物價라는 側面에서 部門別 內訳을 보면 政府部門의 경우 1975~1978年間 GNP 經常增加率은 年平均 34.8%이었던 反面에 財政膨脹率은 35.7%로 財政膨脹率이 GNP 增加率을 上廻하였으며, 그 초과분은 物價에 누적적으로 影響을 주었다 하겠다. 1976年이후 總財政收支는 黑字를 보여왔고 이에따라 政府部門은 通貨還取作用을 하여 왔다. 政府部門中 一般會計와 特別會計의 黑字規模는 增大되고 있으나 特別計定중 糧穀管理基金의 赤字는 增加되어 糧穀管理基金으로 인한 通貨供給殘額은 1978年 現在 9,100億원에 이르고 있다. 政府部門이 物價安定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糧穀管理基金이 通貨에 中立的 影響을 주도록하는 方案이 講究되어야 하겠고, 다음으로는 一般會社計와 特別計定の 흑자폭을 계속 增大시켜 나가면서 이 黑字를 公共料金の 安定이나 物價安定을 위한 補助金으로 쓰여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978年中 民間部門에 대한 通貨供給規模는 前年보다 2倍인 1北2,933億원이었으며, 貯蓄性 予金 등에 의한 通貨還收規模는 前年の 1.4倍인 3,950億원이었다.

따라서 民間部門을 통한 純通貨增加額은 前年の 8倍인 8,981億원에 이르렀다.

이들 資金의 배분 比重을 보면, 實物 生産效果가 비교적 낮은 農業에 13.1%, 重化學工業에 30.7%, 社會 間接資本및 서비스에 32.0%가 投

通貨增加, 經濟成長, 物價上昇率 推移

〈表-5〉 (單位: %)

区 分	通貨增加率	經濟成長率	物價上昇率 (都充)
1971~74(平均)	32.9	10.4	20.3
75	25.0	8.3	19.6
76	30.7	15.5	9.4
77	40.7	10.5	10.1
78	26.5	12.5	12.2
75-78(平均)	30.7	11.7	12.8

資料: 韓銀, 統計月報

下되었고 短期的 生産效果가 비교적 크다고 볼 수 있는 經工業에는 17.2%가 배분되었다. 결국 民間部門에 의해서 과도하게 增加된 通貨는 物價壓力을 가중시켰으며, 게다가 增大된 國民消費欲求의 大部分을 차지하는 經工業에 대한 배분이 낮아 物量不足과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키는 하나의 原因이 되게 되었다.

끝으로 海外部門에 의한 通貨增加를 보면 1975年 -481億원, 1976年 5,124億원, 1977年 6,561億원, 1978年은 -1,984億원으로 通貨還收와 通貨增加의 양극을 急激히 旋廻하고 있다. 이것은 安定된 物價政策·通貨政策·外換政策이라는 일련의 政策들 간에 調和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通貨에 中立的이 될 수 있는 外換政策의 講究가 아쉽다고 하겠다.

部門別 通貨 供給殘額比重

(表-6) (單位: %)

區分	政府	肥料	民間	海外	其他	計
1975	25.7	9.3	102.2	△19.7	△17.5	100.0
1976	16.8	7.1	80.6	18.1	△22.6	100.0
1977	7.1	9.7	62.7	43.1	△22.6	100.0
1978	△4.0	9.8	97.6	21.7	△28.8	100.0

資料: 韓銀, 統計月報

金融 資金 配分 推移

(表-7) (單位: %)

區分	1975	1977	1978(1月~11月)
農林漁業	6.7	10.1	13.1
鉱業	1.0	0.1	1.1
製造業	49.2	54.1	47.9
輕工業	7.2	20.5	17.2
重化學工業	42.0	33.6	30.7
社會間接資本	11.5	10.4	12.7
서비스部門	24.8	17.9	19.3
其他	6.8	7.5	5.9
計	100.0	100.0	100.0

註: 預金, 銀行貸出金 + 產業銀行貸出金

資料: 經濟統計年報

3) 跛行的 價格構造

物價 값은 누가 보든지 合理的이어야 한다. 合理的이라는 것은 原價가 적정해야 되고 流通마진이 적정하게 假算된 狀態를 말할 것이다. 이러한 狀態에서 만이 綜合的 物價水準을 安定시키기 위한 物價對策이 成立될 수 있다. 그러나 물價 값이 적정원가·적정마진과는 다른 차원에서 매겨졌다면 그것은 國民生活의 非合理化를 誘導하는 무서운 現象이니 만치 우선 물價 값이 合理化부터 기해야 할 것이다. 1978年度의 韓國經濟는 일면 成長과 일면 歪曲된 價格構造가 뒤범벅이되어 調和가 없는 特徵을 나타냈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歪曲된 價格構造의 原因은 우리 國民經濟構造에서 배태된 것이나, 이 중 直接的 影響을 끼친 것은 소위 經濟憲法이라 불리는 「物價安定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에 있다. 同法 제 2 조 「獨寡占 事業者의 價格申告」에 의하여 1978年 7月 148個 品目, 257個 事業者가 獨寡占 事業者 및 品目으로 指定되었다. 이것은 從前의 157個 品目 252個 事業者가 가감된 것이다. 同法에 의하면 獨寡占 事業者는 物品의 價格이나 用役의 대가를 決定할 때 또는 變更할 때에는 主務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하며, 主務長官은 申告價格이 不當할 때 價格變更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러한 價格統制는 심한 價格構造의 歪曲을 낳게 되었다. 歪曲現象을 보면,

첫째, 物價當局은 5%이내의 原價上昇要因을 生産性的 提高로 企業內에서 濫化하는 方針을 세우고 年間 2~3%의 物價上昇要因은 해마다 무시되어 76年 4月 이후 한 번도 價格引上이 되지 않은 品目이 허다하게 되었다. 그 結果 品質 및 含量의 低下, 需給壓迫 및 2重價格 形成이 나타나게 되었다.

둘째, 獨寡占으로 指定된 品目이 동시에 輸入自由化 되었을 경우 輸入品이 國產品보다 高價일 경우에는 國內生産業者가 손해를 보게 되고 이것이 深化되면 品貴現象이 나타날 수 밖에 없으며 1物 2價의 現象이 發生하고 있다.

셋째, 部分的이지만 프리미엄 經濟가 誘發되게 되었다. 中間製品 및 完製品을 生産하는 製造業者는 所要原料를 原料메이커로부터 配정받

아야 하는데, 原料需要가 供給보다 큰 것이 一般的이라서 獨寡占 價格에 프리미엄을 附加하여 購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製品의 經路마다 프리미엄에 프리미엄이 加重되는 連鎖作用이 發生하게 된다. 完製品이 獨寡占品目으로 指定되었을 경우에도 流通段階에서 과다한 流通마진이 發生하여 2重價格이 形成하게 된 것이다. 2重價格의 形成은 品目마다 상이한 現象을 보이나 그것의 共通은 小量이 多數의 消費者에게 2重價格의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즉 78年中 實消費者 價格이 獨寡占價格보다 30~50% 비쌌던 시멘트, 中厚板·鐵筋·流毛織物, 스테트·亞鉛渡鐵板 등의 品目은 그 生産量의 80~95%가 小數의 大需要者 (건설업체

등)에게 獨寡占 價格으로 去來되었으나 그 나머지 生産量은 小量을 必要로 하는 多數의 消費者에게 엄청난 프리미엄이 가산된 價格으로 去來되었기 때문에 大部分의 國民이 2重價格의 피해를 보게 되었던 것이다.

네째, 價格의 統制가 品質水準을 低下시키고 동시에 不公正去來를 낳게 되었다. 原價上昇이 製品 價格에 반영되지 않아 獨寡占指定品目の 供給이 增加되지 못함에 따라 非獨寡占指定業体の 非K.S品の 市場出荷가 현저해 지고 따라서 品質水準이 低下되게 된 것이다. 이 경우에 獨寡占指定을 받은 大企業은 價格이 統制되나, 指定을 받지않은 小企業자는 價格의 統制를 받지 않기 때문에 後者가 市場에서 유리한

價格統制 對象品目 및 關係法令

〈表-8〉

年度	價格制度	規制品目	關係法令
1945		石炭, 石油生産物	美軍政一般告示 第2号
1946	最高價格制	綿糸, 綿布, 玉洋木, 運動靴, 고무신, 농구靴, 비누, 성냥, 電球, 自動車튜브, 自動車타이어 (11個 品目)	中央物價行政処 價格規制 第1号 (軍政法令 第90号에 依據)
1947	協定價格制	上 同	" 價格規制 第2'号)
1961	指定價格制	모든 商品의 價格을 5.15線으로 凍結 쌀, 보리쌀, 家庭用煉炭, 無煙炭, 民間導入肥料 (5個 品目)	軍事革命布告令 第6号 物價調節에 關한 臨時措置法
1962	指定告示價格制	밀가루, 頭類, 쇠고기, 돼지고기, 黑鐵板, 鐵筋, 板유리, 木材, 고무신, 鷄卵, 綿糸, 綿布, 시멘트 (13個 品目)	" 第4條의 2 第1項 施行에 關한 閣令
1963	告示價格制	쌀, 보리쌀, 民間導入肥料, 家庭用煉炭, 無煙炭, 黑鐵板, 밀가루, 鐵筋, 木材, 綿糸, 綿布, 시멘트 (12個 品目)	物價調節에 關한 臨時措置法 및 同施行令
	不正去來團束制	雪糖, 人絹糸, 스프糸, 毛糸, 나이론糸, 牛脂, 苛性소다, 소다灰, 硫黃 (9個 品目)	"
1973	最高價格制	쌀, 鐵筋 (2個 品目)	物價安定에 關한 法律
1974	最高價格制	보리쌀, 밀가루, 洗濯비누, 石油類, 石油化學製品, 綿糸, 化纖糸, 紙類, 시멘트, 鐵鋼材, 合板, 라면, 雪糖, 粉乳, 齒藥, 火藥, 板유리, 소다灰, 酒類, 石炭類 (20個 品目)	"
1976	最高價格制 및 獨寡占價格制	밀쌀, 麥酒, 라면, 아크릴糸, 鐵筋, 핫코일, 버스, 綿糸 등 (128獨寡占事業者 및 148個 獨寡占品目)	物價安定 및 公定去來에 關한 法律

獨寡占品目の 告示價와 實去來價格比較 (1978. 12)

〈表-9〉

	品 目
50% 以上	內裝타일, 合板, 毛混紡織物, 피아노綿糸, 混紡糸
30~50%	시멘트, 中厚板, 鉄筋, 流毛織物, 스테트, 亜鉛渡 鉄板
20%~30%	주물용 선철, 냉연박판, LDPE, 一般化物自動車, 아크릴紡織糸
告示價 以下	알미늄 샷시, 알미늄板

〈表-10〉

主要品目の 78年度 最高騰貴率

쌀 (33.3%)	달걀 (51.7%)	고추 (1.034%)	化学調味料 (79.2%)
볼트, 너트 (135.8%)	철근 (39.1%)	김 (105.9%)	시멘트 벽돌 (36.7%)
금 (33.3%)	아연도 철판 (24.0%)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公正去來를 目的으로 하는 物價安定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은 스스로가 禁止한 競争除限行爲를 야기시키는 矛盾을 낳고 있다.

이밖에도 獨寡占指定을 통한 價格統制는 規制를 받지않은 輸出價格이 獨寡占價格보다 비쌀경우 輸出業者가 輸出에만 置重하게 되어 國內 物量供給不足을 야기시키기도 하였고 開發投資 및 危險負擔에 따른 費用이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新製品 開發을 遲延시켰으며 生産者가 자기가 生産한 製品의 價格을 結定할 수 없는 狀況이라서 長期企業經營計劃을 수립할 수 없는 副作用을 가져왔던 것이다.

이러한 副作用들은 生産者를 壓迫함으로써 物量不足 및 品質의 低下를 가져와 결국 消費者만 피해를보게 되었고 價格構造의 혼란 속에서 流通業者만 이롭게 되었다. 結局 計劃性과 合理性을 모토로 하고 勤勉을 實踐綱領으로 하여 달성한 經濟成長을 78년에 와서 價格構造의 歪曲으로 不合理性에서 나온 機會主義의 非經濟를 國民마음 속에 심어 주었다는 우려를 낳게 하고있다.

4) 消費慾求의 急増과 物價需給均衡의 破壞

價格水準은 需要와 供給의 相互作用의 過剩을 不正할 수 없다. 物價의 安定을 需要와 供給의 均衡에서 求하려 함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만성적인 過大需要狀態를 持續해 온 것이 事實이다. 그 까닭은,

첫째, 供給水準은 現實 生産能力에 의해서 一定한 增加를 나타내지만 需要는 다분히 心理的인 것으로 現實 生産能力과는 관련없이 供給의 增加를 앞질러 增加하여 왔기 때문이다.

둘째, 消費水準이 본래부터 아주 낮은 狀態에서 出發하였기 때문에 適定消費水準에 도달하기에는 아직도 낮은 水準에 있기 때문이다.

셋째, 慢性的인 인플레이 狀態 속에서 살아온 國民은, 換物心理에 젖어있어 假需要를 일으키는 수가 많기 때문이다. 끝으로 先進國의 消費生活이 매스컴을 통하여 알려짐으로써 소비욕구의 急増現狀이 發生하고 있다. 따라서 物價安定을 위해서는 現實供給水準과 부합되게끔 消費需要를 抑制해야 할 것이며 또한 消費패턴의 變化를 고려한 生産調節이 있어야 할 것이다.

1971~77年間 우리나라 GNP 成長率은 年平均 9.8% 이었고 同期間의 總消費增加率은 年平均 7.2%로써 增加된 經濟量의 대부분이 消費로 充當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同期間에 國民과 總投資率은 年平均 各各 20.5%, 26.8% 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가 소위 인플레이 狀態를 持續해 왔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인플레이 狀態가 持續되는 한 物價水準은 騰貴할 수밖에 없으므로 消費水準을 低下시켜 그 나머지를 投資에 돌리는 方案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78年度는 이와 같은 消費慾求의 急增에 影響을 받아 物資不足 현상이 나타났으며 또한 不足 物資들을 보면 이제까지 供給이 別문제가 되지 않던 品目이 갑자기 모자라는 物資需給 均衡의 破壞現狀이 發生했다.

工業品으로 供給不足을 나타낸 品目은 鉄筋, 鋼管, 시멘트, 內裝타일, 赤벽돌, 運動靴, 선풍기, 냉장고, 에어컨, 綿糸 등이 代表 品目으로 指適될 수 있는데, 이들 品目 중 시멘트는 輸入까지 하는 波動을 겪었으며, 또한 家電製品의 品貴로 인한 價格波動은 需給均衡의 破壞로부터 벗어난 現狀이었다.

農產品目으로 供給不足을 나타낸 品目은 고추, 마늘, 양파, 참깨, 땅콩, 쇠고기, 돼지고기로 國民 食生活 패턴의 變化에 따른 消費選好의 變化로 肉類需要가 急增하였기 때문이며, 고추의 경우에는 世界貿易量 대부분을 輸入해도

〈表-11〉 貯蓄·投資率推移 (單位: %)

年度	71	72	73	74	75	76	77	平均 (71~77)
GNP成長率	8.8	5.7	14.7	7.5	7.0	14.2	10.5	9.8
總消費率	84.5	84.2	76.3	79.3	81.1	76.7	74.4	79.5
總消費增加率	9.9	5.7	8.1	7.7	6.1	7.5	7.4	7.2
國民貯蓄率	15.5	15.8	23.7	20.7	18.9	23.3	25.6	20.5
總投資率	25.4	21.8	25.8	31.3	29.9	25.8	27.9	26.8

資料: 國民所得計定改編結果 (韓銀, 1978)

〈表-12〉 不足物資의 生産施設 擴張

品目	單位	'78	'79	增加
鉄筋	千 噸	1,661	1,825	164
鋼管	"	950	1,370	420
시멘트	"	16,000	20,400	4,400
內裝타일	千 坪	1,744	2,484	740
赤벽돌	百萬枚	220	235	15
運動靴	千 足	135,000	138,000	3,000
扇風機	千 台	2,000	2,600	600
냉장고	"	1,200	1,600	400
에어콘	"	40	160	120
버스	台	14,400	16,000	1,600
綿糸	千 鍾	2,646	3,286	640

資料: 商工部

모자라는 奇現狀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經濟成長과 더불어 變化하는 國民消費 패턴의 變化에 따라 品目別 需給對策을 講究함으로써 物價安定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表-13〉 不足物資의 輸入

區分	78導入量	79確保量	常時備蓄量
고추	21,092 ^{MT}	62,000	5,000
마늘	10,794	25,900	5,000
양파	23,401	43,500	5,000
참깨	7,500	19,400	1,000
땅콩	4,384	4,300	2,000
콩	63,000	90,000	30,000
쇠고기	40,444	58,600	11,000
돼지고기	6,372	16,000	4,000
닭고기		2,000	2,000
水産物	8,953	97,800	49,300
合計	185,940	419,500	118,300

資料: 農水産部

5) 公共料金の 引上 및 海外原資材價格의 騰貴

公共料金の 引上은 유틸리티(Utility) 負擔의 增加로 연결되기 때문에 製品의 原價上昇要因으로 作用할 뿐만 아니라 公共料金の 支出對象이 全体 國民이기 때문에 物價上昇을 느끼는 感度の 合計가 크다 하겠다.

公共料金の 引上推移를 보면, 電力料金の 경우 75年 12月 1日 10%, 76年 11月 1日 15%, 78年 9月 22日 12%, 79年 3月 9日 12%의 引上을 나타내고 있다. 電力料의 原價構成에서 石油가 차지하는 比重이 53%인 점을 감안하면 石油價引上으로 인한 電力料金の 引上은 불가피하다 하겠으나 原油價引上幅을 上廻한다는 점과 公共料金으로서의 特殊性을 생각할 때, 그 인상폭이 높다는 것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鐵道料金の 경우 75~77年間 年平均 12.0%, 用水는 같은 期間에 28.1% 引上되어, 都売物價上昇率보다 높은 騰貴率을 보임으로서 奇現狀을 나타내고 있다. 이밖에도 石炭값은 77年 2月 4日 34%, 同年 12月 18日 33.2%가 引

상되어 同率의 煙炭값 引上을 가져옴으로써, 이에 따른 物價波及이 78年中에 나타나게 되었다. 公共料金の 引上은 인플레이션리에 지대한 影響을 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引上에 대해 신중을 기함은 새삼 強調할 必要가 없으며, 그 引上率은 적어도 都壳物價上昇率의 반 이하가 되도록 함이 타당하고, 지금까지와 같이 都壳物價上昇率, 同水準 내지는 그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企業의 經營合理化 또는 능률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며, 그래도 안되면 補調金이라도 支拂함으로써 外國의 例에서 볼 수 있듯이 公共料金を 反인플레이션手段으로 活用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 海外原資材價格의 引上波及을 보면, 原油價의 경우 77年 7月 사우디 및 아랍토후국이 5%를 引上했고, 78年 12月 OPEC는 14.5%의 油價引上을 結定했다. 14.5%의 油價引上은 79年 3月 7日 国内 石油類製品價格을 平均 9.5% 引上시키는 結果를 가져왔고 電力料金도 5% 정도의 引上圧迫을 받게 되며, 따라서 都壳物價는 2% 정도 上昇할 것으로 推定되고 있다. 그런데 이란 政情의 不安은 우리로 하여금 原油價格問題 보다도 값이야 어쨌던 原油의 確保를 더 중요시 하게 함으로써 原油 및 그 價格引上으로 인한 波動의 위협을 增大시키고 있다.

다음 輸入依存도가 높은 原綿의 78年度 輸入價格 上昇率은 35.1%이며, 이에 따라 綿織物의 都壳價格 上昇率은 19.8%가 될 것으로 分析되고 있다.

原木의 輸入價格 上昇率은 78년에 37.3%, 牛脂는 46.4%, 天然고무는 41.6%, 古鉄은 71.0%로서 이들 5個 品目の 国内關聯品目인 合板·洗濯비누·자동차 타이어·鉄鋼等の 工場渡

國際 原油價格引上率 推移

〈表-14〉

年度	75	76	77	78
引上率	10% (10月)	5% 10% (10月)	5% 0 (7月)	14.5% (12月) (79年 1月부터 4 단계로 区分 적용)

註: 5%引上國: 사우디아라비아, 아랍토후국
10% " : OPEC 11國

價格 引上波及은 平均 14.1%가 되고 있는 것으로 分析되고 있다.

主要 原資材를 海外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들 原資材의 國際時勢에 언제까지나 무방비한 狀態로 放置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에

主要原資材價格과 国内關聯品目の 價格上昇動向 〈1978年 基準〉

〈表-15〉 (單位: %)

品 目	輸入價格上昇率	国内關聯品目	都壳價格上昇率
原 綿	35.1	綿 織 物	19.8
原 木	37.3	合 板	17.7
		美 粧 合 板	17.5
		木 製 冊 床	10.6
牛 脂	46.4	洗 濯 비 누	14.5
		라 면	11.1
		「마 아 가 린」	10.0
天 然 高 木	41.6	「自動車타이어」	16.9
		再生「타이어」	15.0
		고 木 신	17.1
		運 動 靴	20.3
古 鉄	71.0	鑄 鋼	12.5
		棒 鋼	12.3
		鑄 物	12.6
平 均	46.3		14.1

註: 1) 工場渡임.

資料: 都壳物價(韓銀 1978. 12)

能動的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메이저를 包含한 國際資源資本의 橫暴를 賢明하게 피해나가는 方法을 講究하는 한편, 先物去來制度를 民間部門이 利用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外換을 海外資源開發에 活用토록 하는 方案이 積極 推進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海外原資材 備蓄이 充分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政府의 物價政策

政府는 今年 4月에 經濟安定化 綜合施策을 發表한 바 있다. 同施策은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綜合施策으로 安定이 政府의 經濟目標 중

에서 최우선하는 基本方針 아래 세워진 것이다. 즉 物價安定을 위해서는 成長率에 너무 執着하지 말고 民生安定을 최우선 할 것이며, 經濟安定基盤을 構築하는 데에 必要하다면 輸出目標의 調整 重化學部門投資의 調整 등의 措置도 檢討하라는 大統領의 指示에 의하여 經濟企劃院을 中心으로 作成, 發表된 것이다.

이번 發表된 經濟安定化 綜合施策은 經濟의 여러부문에 상당한 影響을 줄 것이고, 또한 이제까지의 短期的이고 彌縫的인 安定政策에서 벗어나, 2-3년에 걸쳐 施行될 綜合政策이라는 점에서 그 施策內容을 昭詳히 紹介하면서 아울러 그 의미와 問題點을 밝히는 것이 重要하나 지면관계상 그 主要內容을 紹介하는 것으로 그치겠다.

30年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전기가 되도록 꾸며진 이번 施策의 主要內容은 生必品 需給圓滑化와 價格安定, 財政緊縮의 堅持, 重化學投資의 調整, 金融運用의 改善, 不動產 投機抑制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짜여져 있다.

生必品需給圓滑化와 價格安定을 위해서는 첫째, 채소, 果實 등 園芸作物의 增産, 고추, 마늘, 돼지고기 등 8個 農産物의 備蓄, 綜合商社의 農水産物輸入許容을 內容으로 하는 農水産食品의 需給圓滑化이다. 둘째, 生活緊要物資生産資金支援擴大로서, 支援業種은 화장지, 세탁비누 등 8個 生必品, 내장타일, 시멘트등 6個 建築資材, 紙類, 石油化學製品等 36個 中間財이며, 主要支援方案은, 今年 上半期에 500億 원, 下半期에 500億 원, 合計 1,000億 원을 支援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生必品生産施設의 新增設을 圓滑히 하기 위하여 新·增設을 制限하는 制度와 規制를 정비하고 外資導入認可時 既存業體의 市場保護를 위한 施設規模上의 制限을 廢止한다는 점, 原材料 需給의 圓滑化를 기하기 위하여 內需不足品目에 대한 輸出을 調整하고, 輸入關稅를 引下하며, 輸入資格을 확대 하겠다는 점, 生必品 關聯物資의 關稅率을 引下하고, 生必品 및 零細事業의 所得標準率을 引下하는 대신 奢侈性 業種의 所得標準率을 引上

〈表-16〉

重点 安定生必品の 選定

需給點檢品目 (50個)	重点安定対象品目の 選定	(参考) 台湾의 重点安定対象生必品
〈農産物 (19)〉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참깨, 콩, 무우, 배추, 양파, 마늘, 고추, 落花生, 배, 사과, 감자, 고구마, 감귤, 쌀, 보리쌀,	※ 總25個品目 〈食料品 (13)〉 쌀, 밀가루, 콩, 쇠고기, 돼지고기, 粉乳, 고등어, 명태, 김, 고추, 마늘, 참깨, 옥수수	○ 쌀, 밀가루: 安定基金造成 (22億 원) ○ 食用油·소스: 食物油联合会 協調 ○ 粉乳·輸入 쇠고기: 輸入原價供給 ○ 돼지고기: 輸出制限 ○ 콩: 輸入原價로 無制限供給 ○ 채소類: 輸入 및 流通構造改善
〈水産物 (10)〉 조기, 갈치, 고등어, 오징어, 명태, 꽁치, 전오징어, 건멸치, 복어, 김	〈工産品 (12)〉 설탕, 세탁비누, 合成세제, 치약, 운동화, 형광등, 中質紙, 화장지, 메리야스 內衣, 作業服, 선풍기, 煙炭	※ 그밖에 合板, 시멘트 建築資材 등 36個品目은 監視品目으로 選定 輸物量을 調整
〈建築資材 (8)〉 알미늄샷시, 內裝타일, 合板, 시멘트, 鉄筋, 赤벽돌, 骨材, 鋼板		
〈燃料 (2)〉 無煙炭, BC油		
〈原資材·其他 (11)〉 古鉄, 原木, 綿糸, 아스팔트, 天日塩, 설탕, 牛乳, 세탁비누, 運動靴, 扇風機, 粉乳		

資料: 經濟企劃院 (經濟安定化綜合施策, 1979. 4)

하는 稅制의 彈力的 運用 등이 특기할만 하다. 그리고 物價行政을 개선하여 獨·寡占 規制對象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78年만 하더라도 獨·寡占指定品目は 148個이었는데 今年 1月 31日에 94個가 해제되고 4月에 다시 28個가 해제되어 現在 46個가 남아 있는데, 이를 30個 내외로 다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價格構造를 개편하여, 國內價格이 國際價格보다 싼 品目は 輸入自由化를 推進하면서 必要할 때에 關稅로 保護하고, 國內價格이 輸出價格보다 현저하게 싼 品目は 段階的으로 輸出價格에 접근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財政緊縮面에서는 79年度에 예산절감이나 집행보유를 통하여 3,000億원의 통화환수를 여행하고 80年度에는 黑字基調를 견지한다는 것이다.

重化學投資의 調整은 不急事業을 연기하는 것으로, 그러한 事業은 長期的으로 대외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事業, 施設過剩 또는 重複投資가 대어 불실화 될 가능성이 큰 事業, 자기 자금투입비율이 낮은 事業이다. 輕工業과 重化學의 投資比重은 76년에 各各 26%, 74% 이었고, 79년에는 各各 18%, 82%로 전망되었으나 이를 시정하여 22%, 78%로 되게끔, 輕工業投資를 증대시키고 重化學投資를 減少시킬 計劃이다. 이는 生必品을 生産하는 輕工業投資를 증대시킴으로서 生必品供給을 증대시키자는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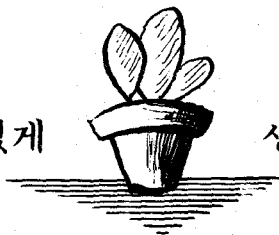
을 내포하고 있다.

金融運用의 改善面에서는 政策金融을 축소·정비하고, 저축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잠정조치로 財形貯蓄의 金利를 現行 23.0%에서 24.3%로 引上하고, 定期積金의 金利도 現行 13.2%에서 16.2%로 引上하겠다는 것이다.

不動產投機 抑制面에서는, 土地去來 許可 및 申告制를 講化하기 위하여 國土利用管理法 施行令을 改正하고, 79年末까지 6,933km²를 對面적으로 하여 全國 36個都市計劃區域에 對한 基準地價告示를 完了하며 官認契約書使用을 不動產去來의 効力要件化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實需要者의 去來는 원활히 되도록 하여 서울시의 경우 現行 住宅登錄稅가 보존등기와 이전등기로 2重賦課되던 것을 보존등기 하나만으로 가능토록 세율로 引下하고 分讓아파트에 對한 課稅도 現行의 分讓價格에서 課稅時價標準額으로 引下, 통일하겠다는 것이다.

經濟安定化 綜合施策은 이밖에도 生必品安定 特別對策을 수립하여 다음 <表-16>과 같은 重點安定 生必品을 選定하고, 이들品目の 增産을 위한 主生産團地 造成 및 契約栽培擴大, 價格安定帶운 용과 最少備帶制, 輸入円滑化와 關稅引下, 新規企業의 進入機會保障等을 計劃하고 있다.

소비는 규모있게



생활은 분에 맞게